

여야 4당 “국민 기만... 민주주의 2차 가해”

문대통령 “골목상권 르네상스 추진”

정치권, 한국당 '5·18 망언' 징계안 반등

소상공인 초청 간담회... 전국 구도심 30곳 복합공간 조성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 지만원 등 4명 명예훼손 고소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청와대로 초청,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속도와 금액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폭에 있어서는 ‘속도 조절’ 쪽에 힘을 쏟겠다는 뜻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행편이 여전히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할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

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망언을 쏟아낸 자들에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결정은 낯감도에게 다시 칼을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국당 윤리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힐난했다.

민중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사안을 두고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한국당의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며 “한날 당직 선출에 관한 규정을 내세워 민주화 역사를 날조한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

전대-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 등 4명을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여야의 반발에 대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일각에서 왜 빨리 (징계) 결론을 안 내고 갈팡질팡하는냐고 비판하는데 우리당은 이 문제를 정도(正道)로 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의원에 대한 징계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따져가며 처리해야 한다”면서 “인민재판식으로 판단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당 윤리위 결정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이제 훌가분해졌다.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순례, 이종명 의원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징계가 유보된 김진태-김순례 의원이 전당대회 이후 제명 등의 조치

가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종명 의원의 제명이 확정될 것인지도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동정 여론이 있어 의원총회에서 3분의 2의 제명 찬성 확보도 불확실하다. 한국당에서 제명된다 하더라도 무소속 국회의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또 김진태-김순례 의원이 전당대회 이후, 윤리특위에 재회부 된다 해도 제명의 결정이 내려질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들이 지도부에 진출한다면 윤리위 회부 및 징계가 어려워 질 수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이들의 제명을 추진한다고 해도 현재 자유한국당 의석(113석)을 고려한다면 3분의 2 이상(199석)의 찬성 확보는 힘든 현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조치가 사실상 시간 벌기로, 정치적 소리는 바뀔지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저도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고 회상하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 공간과 소풍, 지역 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이용객 30%, 매출 24%가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여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망언자들 당권 레이스 ... “제1야당이 부끄럽지 않나”

이 총리 “5·18 부정은 국회 자기 부정”

국정현안회의... “민주화운동 규정, 김영삼 정부시절 합의”

전대 출마 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예 논란 확산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자심반민”을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정부 시절 국회의 합의였다”며 “국회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 부정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그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대한 한 번 결정적인 상처를 주게 될 것”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일부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논란만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은 이날 중앙윤리위와 비상대책위 회의를 잇달아 열고 ‘5·18 망언’ 논란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나, 윤리위 결과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불거져 당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당장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유예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은 ‘전당대회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인 공고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받는다’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징계유예를 결정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지난 12월 2·2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후보로 각각 등록했다. 따라서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27일까지 이들의 징계를 유예한 것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5·18 망언’ 논란 발생 후 이들이 지난 12월에야 후보 등록과 맞물려 윤리위를 소집하는 바람에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가 유예된 것이다. 당의 ‘낙장 징계’가 두 의원의 징계유예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이종명 의원에 대해 내린 최고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놓고도 실현 여부에 불응점이 불다. ‘윤리위원회’ 규정 2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은 윤

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른 의원들에 비해 가혹하다는 동정론이 당내에 퍼지는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제명조치에 동조할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다. 만약 이 의원의 제명안이 의원총회에서 부결된다면 한국당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추가 비난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 3분의 2 찬성을 얻어 제명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의원직 제명과 관련한 문제는 국회로 공을 넘기는 모습이다.

이에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원 지위 유지에 관한 문제는 국회 사무처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만약 의원직이 상실된다면 비례대표 승계 여부는 국회 사무처 해석을 받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 조치가 ‘여론 전환을 위한 일시적 충격요법’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아울러 당내에선 이번 징계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30%에 육박하던 당 지지율이 이번 사태의 여파로 20%대 중반으로 떨어지지자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들의 의원을 깨고 싶어 하는 주장도 나온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망언자들의 미소 14일 오후 대전 한밭운동장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3차 전당대회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 후보 김진태 의원(오른쪽)과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순례 의원이 밝은 표정으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라며 “몹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이 총리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총리는 또 일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따듯하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요즘 한일관계에 몇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전직 외교관 등이 국내 혐한기류에 영합하려는지 신뢰에 어긋나는 언동을 하곤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영남도 실망 ... 한국당 지지율 ‘뚝’

리얼미터 3.2%P 내린 25.7% ... 민주 2%P 오른 40.9%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 때문에 한국당 지지율이 일주일만에 크게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2%포인트 하락한 25.7%로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당 지지율은 대부분 지역·계층에서 하락했다. 특히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 60대 이상과 20대, 학생과 노동자에서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2.0%포인트 오른 40.9%를 기록, 40% 선을 다시 회복했다. 정당당은 0.3%포인트 상승한 6.5%로, 바른미래당을 다시 앞섰다. 바른미래당은 내린 5.6%, 민주평화당은 0.4%포인트 내린 2.5%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전주보다 0.8%포인트 내린 49.6%로 집계됐다. 부정평가 역시 0.7%포인트 하락한 44.7%, 모름·무응답은 1.5%포인트 상승한 5.7%였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5·18 왜곡 처벌법’과 관련해 국민 절반 이상은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군 일로읍 화산연꽃단지 점 1192㎡ 조용한 생활 1억2700
- 화순군 동면 사성리 656㎡ 경관 아주 좋음 1억1880만원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음 1130㎡ 1억2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고흥 도암읍(녹동) 석우면매지 393㎡ 연수 1억 원 가용·귀여 3억 원
- 무안 윤남면 바다인접 전 계획관리지 4505㎡ 조건은 상당요 1억5천
- 해남 옥전면 산·전·담 36625㎡ 조용한생활적합 1억3천
- 영암읍 학소리 농림지 담(목담) 24694㎡ 조용한생활적합 1억9천
- 원도 군외면 원동리 임 7751㎡ 투자에 좋은 바다인접 4억6천
- 무안읍 원동·다세대부지 군청 앞 1031㎡ 투자에도 좋은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순창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서구 쌍촌동 윤전지수지 부근 2층 주택 땅 105㎡ 새주택 118㎡ 2억6천
- 강진군 드림팜관광농원 땅 10194㎡ 시설완비 6억5천
- 충장로5가 버스도착 상점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화순 농주면 소재지 땅 588㎡ 3층건물 1128㎡ 은행 1억 인수액 1억 원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완도읍 정도리 땅 4024㎡ 권평 1203㎡ 연수원 등 복합 9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 원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 원
- 농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물 279㎡ 4억 5천

특급물건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바다인접 2346㎡ 펜션 등 복합 5억
- 충장로5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100. 25억
- 정읍시 신대면 1213㎡ 감정 6억4천 다세대 적합 은행 3억7천 매도 4억 3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여수, 땅

- 여수시 봉강동 343-1, 2, 344번지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 대지 431평, 6차선 도로접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 대출-18억7500만원
- 시세/감정가-약 35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30억

문의. 010-6834-7400

웰다잉전문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 3월 16일 개강 ●

2018. 2. 4일 부터 시행된 “사건영양의료의향서의 홍보, 상담, 등록 등 인식교육을 담당할 ‘웰다잉전문 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모집기간 **2019년 2월 11일(월) ~ 3월 12일(화)** 선착순 00명
교육기간 **2019년 3월 16일(토) ~ 3주(토)** 총 30시간
수강료 25만원, 자격증비 5만원, 교재비 1만원
계좌번호 광주은행 1107-020-709185 대한웰다잉협회 광주광역시부
교육장소 KT빌딩 6층(전남여고 옆), (주)리치카드에셋 강의실
상담전화 ☎ 062)511-0030, 010-5522-9700

보건복지부 지정 사건영양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한웰다잉협회 광주지부

★ 본 지부에서는 “사건영양의료의향서”에 대한 홍보, 상담, 등록 등의 업무를 무료로 봉사 하고 있습니다.
★ 기관, 단체의 요청 시 전문강사, 전문상담사를 파견합니다.
· 문의전화 : ☎ 062)511-0030 · 팩스 : 062)512-8767